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축제

“전통부활의 청신호 쏜다”

제12회 한내축제 뜨거운 열기 속 치러져

일동종교 제7회 청계문화축제



지난 12일과 13일 일동종교 일동종합고등학교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로 나눠 제7회 청계문화축제를 마련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일동종교 정영순 학부모회장, 차인희 부회장, 박순덕 부회장, 정경숙 총무, 임종석 운영위원장)

지난 12일과 13일 일동종교 일동종합고등학교(교장 남궁 돈)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나눠 제7회 청계문화축제를 마련했다.

전시행사, 상설행사, 참여행사, 경연행사 및 기타행사로 나눠 실시된 이번 축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축제를 지원하는데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전시행사로는 국어과의 시화전시회를 교정과 진입로에서 실시했고 3학년부는 선사토기 전시회로 눈길을 끌었고 1학년부는 신문디자인 전시, 교육연구부의 참여아이템 전시, 양초공예반의 양초공예 전시회, 환경지킴이의 학생활동사진전 등이 개최됐다.

이중에서 교육연구부의 참여아이템 전시는 포천종합고등학교 '비즈-플라워'를 초청해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이제 막 발돋움하고 있는 교육연구부의 활동방향을 제시하

도 했다.

학부모들은 교정에서 먹거리 장터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축제를 지원했고 화학공업부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학생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참여행사로 개최된 림보게임, 추역의 뽀기(달고나), 바이아드론 사격대회, 카트라이더 대회, 볼통선 받기, 5대5 탁사움대회, 단체줄넘기 대회, 자전거 천천히 타기, 아리랑스 공연 등도 돋보였다.

특히 아리랑스 공연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신나는 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동종합고등학교 남궁 돈 교장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통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학교로서 사람과 마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제7회 청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종합고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치러진 동아리 공연에서 오고무와 풍물공연 등 어울이랑을 진행했다.

포천종합고등학교(교장 이광호)의 전통과 멋을 한자리에 느낄 수 있는 '제12회 한내축제'가 지난 17일 교내 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학생들과 교사의 뜨거운 호응 속에 치러졌다.

학교의 전통계승과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 교사와 학생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이번 축제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저녁 7시까지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운동장에서 개회식을 필두로 ▶포천 종을 울려라! ▶꼬마 자전거 경주 ▶놀이마당, 도서관 앞에서 진행된 ▶가슴을 열 어라, 전시장 입구에서 ▶전시장 개관테이프절단 ▶전시관람 및 자유행사 ▶전시관람 및 자유행사가 치러졌다.

이후 오후에는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은 ▶여는 마음으로 행운을 잡아라(년센스 퀴즈), 코믹모션 Skin ship ▶동아리 공연으로 관악연주, 풍물공연, 오고무 공연, 오고무·풍물공연 ▶미스포천종교 선발대회 ▶비비비 댄스팀 캠퍼스 공연 ▶댄스·가요 경연대회 ▶시상 및 마무리로 진행됐다.

또 전시 및 자유행사로 비즈플라워, 솟공예, 비누공예, 플라워아트, 십자수, 퀼트, 교사작품, 모자이크한내축제, 플로켓발사 및 과학실험 시연회, 컴퓨터 공학보기, 스타크래프트, 애니메이션상영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이번 축제를 준비한 교사 현덕자 씨는 “한내 축제는 지난 1999년 11회를 끝으로 맥이 끊어졌다 최근 부활의 조짐 속에 치러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삼아 오랜 시간 묻혀있던 축제의 전통을 되살려 학교의 전통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눈부신 5월의 햇살아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련한 학교축제의 현장 열기는 뜨겁기만 했다.

아빠 어렸을 적에(27)

군인아저씨

그곳에는 명환이도 함께 있었습다.

“야, 우리 더워 죽겠는데 여기서 목욕하고 가자.”

재환이가 말하셨습니다.

“안 돼!”

해장이가 손질을 하며 말렸습니다.

“여기서 수영하면 뱀이 따라와 불알 따먹어? 전에 제일이하고 나랑, 삼재랑 명환이랑 뱀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 가운데서 유혈메기 뱀이 나타나서 따라와 삼재랑 나랑 도망 나오느라 죽을 뻔 했어. 그런데 명환이 이 새끼 정말 쪼꼬만개 겁두 하나도 없더라. 굴속으로 들어가는 뱀을 꼬리를 자부땡겨 빙빙 돌리더니 뱀에 뿔쳐서 죽었어.”

해장이가 입에 침을 튀겨 가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야, 유혈메기가 뭐가 무섭냐? 유혈메기는 꽃뱀이라 독도 별로 없어. 살모사나 능구렁이가 무섭

지. 살모사나 능구렁이한테 물리면 손가락 잘라야 돼. 성원이형 있잖아? 그 형 살모사 잡다가 물려서 둘째손가락 한 개 잘랐잖아!”

명환이가 마치 무장 공비를 토벌한 국군이나 되는 것처럼 용감함을 과시하며 말했어요. 다 명환이는 우리들에게 “뱀 귀신”으로 불립니다.

우리들은 계속 발걸음을 옮겼습다.

“야, 동키 개울 옆에 복숭아 과수원 있지? 거기 복숭아 되게 맛있어. 전원이 사심 개나 준대.”

재환이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두 작년에 천원어치 사다가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 엄마가 우리 사남매에게 팔고루 나누어 주셨는데 나는 장롱 속이 볼 밑에 몰래 감추어 놓고 먹으려다 까딱해서 엄마가 꺼내보니까 썩었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숨이불 맞았다고 직사하게 혼났

김순진의 연재 수필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

내가 맞장구쳤어요.

“야, 거봐? 너는 늘 욕심이 많아서 탈이야!”

일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삼 그늘에 굴 파러 가면 아기는 혼자남아 집을 보오다가...”

우리들은 ‘삼집가기’ 노래를 부르며 눈두릅길을 따라 일열 종대로 걸어갔습니다.

수송부대 옆을 지날 때입니다.

군인 아저씨가 보초를 서면서 심심하여 우리에게 늘 통파시켜 주었음에도 또다시 못 간다며 시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군부대 밖이어서 군인 아저씨의 통제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총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들은 가끔 군인 아저씨의 노래가 되어야 했지요.

“너희들 누나 있어?”

우리들은 늘 군부대 옆에 살아가서 군인들의 상투적인 물음의 대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다.

“네, 우리 누나 정말 이빠요! 서울에서 가방공작 다니는데요. 머리두 길구요. 화장품 냄새도 얼마나 좋은데요.”

재환이가 빠기듯 어깨를 들썩

김연수
학생명예기자(정남중 1년)
공부하라고 송우리집도 마련해 주는데, 항상 말 안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부모님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연수도 이젠 의젓하고 멋진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저 광고쟁이 같고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던 연수도 이젠 많이 커버렸죠? 벌써 중학생이 되다니... 그 만큼 더욱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질 않네요. 엄마, 아빠가 좋은 환경에서

듣고 말씀만 피워서 지금도 무척 후회가 돼요. 중간고사 성적으로 엄마가 꼭 심화반에 올라 큰 기대를 했지만 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 지도 무척 안타까워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열심히 해서 꼭 이루고 싶었는데... 노력의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부터 노력을 열심히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시험이야기는 접어두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지요?

너베기 집에 가서 쪽 쉬고 집안일 좀 도와 드려야겠어요. 안력으로 6월2일이 제 생일이지만 5월달로 유력으로 하며 생일을 챙겨 주신다는데 항상 저 이렇게 낱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 생활모습 보다 더 나은 생활하고 학교에서도 적응 잘 하면서 무사히 1학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께서 항상 뒤에서 밀어 주시는 거고 맘고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욱 최선을 다하는 '나'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화이팅” 연수 올림

제11회 성년의 날 맞아 전통성년식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예절과 절도 다짐

포천향교는 지난 16일 포천 유림 회관에서 제11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식을 개최했다.

포천향교가 주최하고 유도회 포천시지부와 포천 청년유도회, 포천 여성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성년식은 삼가례와 가관례, 초례, 명차례, 성년선언, 성년의 결의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성년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985년도에 출생해 올해로 만 20세가 되는 성년 46명(남 28, 여 18)이 참가해 뜻깊은 예식을 치렀다.

이들은 이날 성년례에서 독자적 인 인격체로서 내적인 성숙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며, 예절과 절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하사에서 이제 성년이 돼 소중한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만큼,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덕을 키워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항상 품가짐을 삼가며 어버이께 효도해 밝은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명품명화단지 내 건설된 신의 빌딩 건물, 미니언즈 테마파크로 한해 25억 109만원의 유명 건축물이 한시름 공진합니다.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대표전화 032-320-6000

www.aiinsworld.com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

60일간의 프랑스여행

프랑스 문화에 빠져-음식대

- 감미로운 선물의 밤
- 노랑이색의 황제하는 노랑이색의 낭만
-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왕자와 공주에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를 여행하는 건 어떤가요?
- 연극으로 복제해보요!

어린이날은 프랑스에서~

-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
- 인형극 관람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달아요!
- 환상의 불꽃놀이
- 자신의 본모습을 알아가는 시간
- 피자 도우 Show!
- 프자 반죽을 이용한 피자 만들기 (Mr.Pizza 드림)

즐거움의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프자도우 카레 이벤트
- 가짜 돈과 진짜 돈의 차이
- 왕자 불꽃놀이
- 노랑이색의 놀이
- 가짜 돈과 진짜 돈의 차이
- 왕자 불꽃놀이
- 프자도우 카레 이벤트
- 프자도우 카레 이벤트
- 프자도우 카레 이벤트

사건파고-파리까지!

-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탄에 담아 직접 파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미리보기)
- 다지탈 카메라, 무료입장권 등 (가맹점 내 상세보기)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PARIS VISITE, KEB, 카드, 비스타카드, Mr.Pizza